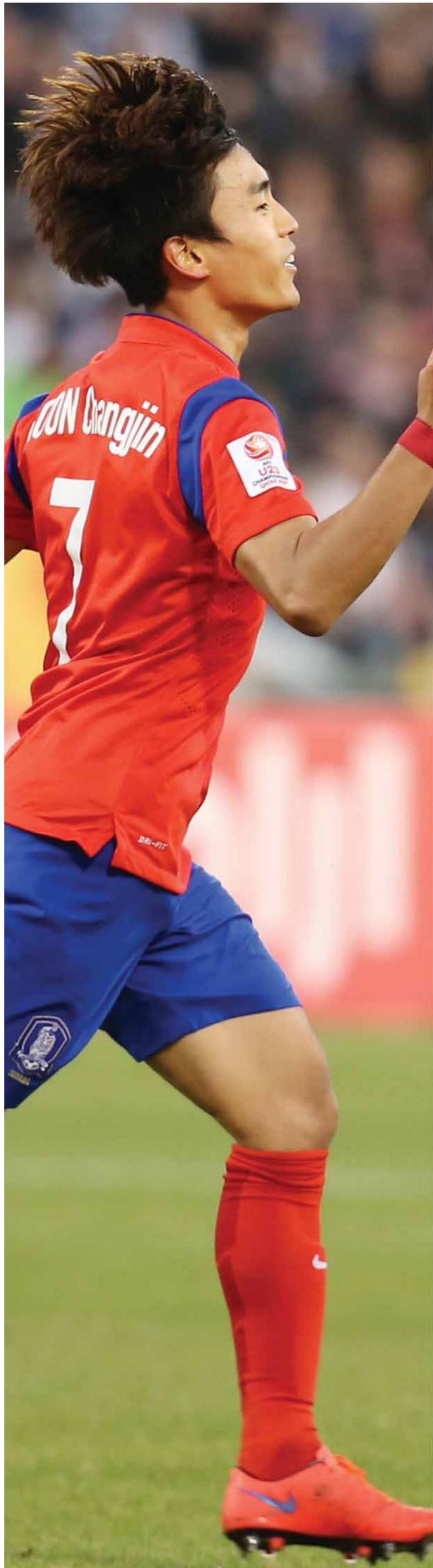


신태용호 행운의 승리...카타르 넘으면 '리우' 티켓



AFC U-23 챔피언십 8강 문창진 결승골...요르단 1-0 격파

카타르, 월드컵 맞춰 육성된 팀...27일 새벽 최고의 박매치



앞으로 1승만 더 추가하면 8회 연속 올림픽 축구 본선 진출이라는 위업을 달성할 수 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 23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카타르 SC 스타디움에서 열린 요르단과 대회 8강전에서 전반 23분 타진 문창진의 결승골을 끝까지 지켜내 1-0으로 이겼다. 준결승에 진출한 한국은 8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바짝 다가섰다.

한국 대표팀은 27일 오전 1시 30분(이하 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알사드 스타디움에서 개최국 카타르와 4강전을 치른다. 이날 경기에서 승리해 결승에 진출하면 무조건 올림픽 본선에 진출한다. 4강전에서 패하면 3-4위전에서 승리해

야 대회 3위 이내의 팀에게만 주어지는 리우행 티켓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리우로 가는 길은 갈수록 험난해지고 있다.

8강전 상대인 요르단도 애초 예상보다 훨씬 강한 모습을 보였다. 4강전에서 만나는 카타르는 요르단보다 더 강한 상대다. 카타르는 중동에서도 축구 강국으로 꼽힌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8강에 올랐고, 2006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특히 2022년 월드컵을 유치한 뒤 장기계획을 세웠다. 현재 스페인 출신인 펠릭스 산체스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대표팀은 6년 뒤 카타르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맞춰 육성되고 있다.

현지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표팀 선수의 상당수는 유소년 시절 스페인에서 위탁 교육을 받았다. 이 같은 영향 때문인지 카타르 선수들은 기술이 뛰어나고 팀 전체적으로도 짧은 패스를 앞세운 세밀한 축구를 하고 있다.

이들이 2014년 AFC 19세 이하(U-19)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오른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현재 23명의 대표팀 중 5



명은 성인 대표팀에서도 뛰고 있다. 특히 카타르의 주장으로 왼쪽 풀백인 아브델카림 하산(22·알사드)은 전력의 핵으로 꼽힌다. 카타르 국내리그의 스타 플레이어라 자리 잡은 수비수인 하산은 활발한 오버래핑 능력을 앞세워 공수 양면에서 팀에 공헌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도 4골로 득점 선두에 올라 있다.

이집트 혈통인 공격수 아흐메드 알라엘딘(22·알라얀)은 단신이지만 스피드가 빠르고 개인기도 뛰어나다. 알라엘딘도 이번 대회에서 4골로 득점 공동 선두에 올라 있다. 북한과의 8강전에서 1골·1도움을 기록한 아크람 하산 아피프는 스페인 프리메리가 세비야와 비야레알을 거쳐 현재 벨기에 2부 리그팀인 유벤프에서 뛰는 공격수다. 신태용 감독도 기자회견에서 아브델카림 하산과, 아흐메드 알라엘딘, 아크람 하산 아피프를 언급하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신 감독은 이들의 등번호를 언급하면서 "전형적으로 잘하는 선수들이다. 카타르는 4-2-3-1을 쓰면서 개인기량이 뛰어나고, 홈의 이점도 있어서 힘든 경기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신 감독은 "이미 상대 분석을 했기 때문에 카타르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카타르와의 경기는 빅매치가 될 것이다. 재밌게 경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김병현 절친 곤잘레스 방문 박찬호, 1박 2일 특별 강연

KIA 애리조나 캠프 '후끈'

밤에는 힘이 되는 동료와의 '동고동락(同苦同樂)' 낯에는 특별 게스트와의 '절차탁마(切磋琢磨)'. KIA 타이거즈의 애리조나 캠프가 고요하지만 치열하게 흘러가고 있다.

KIA는 지난 16일 미국 애리조나를 무대로 해 2016시즌을 위한 스프링 캠프를 시작했다. 캠프는 '이상무'. 3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캠프는 두 턴을 돌았다. 25일(이하 한국시간) 선수들은 애리조나 캠프의 두 번째 휴식일을 맞았다.

젊은 선수들 위주로 진행되는 애리조나 캠프는 '기회의 시간'. 선수들은 편한 이들이자 경쟁자와 '동고동락' 하면서 기회의 시간을 붙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부분 같은 포지션의 선수들로 룸메이트가 구성됐다. 베테랑들이 가세하는 오키나와에서는 변화가 있었지만 일단은 마음 맞는 이들끼리 한방에서 호흡을 맞추며 2016시즌의 꿈을 꾸고 있다.

오키나와에서 윤석민과 자제 캠프를 치렀던 '광주일고 선후배' 좌완 심동섭과 유창식은 이번에도 한방을 잡았다. '잠수함' 듀오이자 친한 친구인 박준표와 박동민, 나라히 입단해 성장하고 있는 홍건희·한승혁도 알공달공 룸메이트다. 이흥구는 막내 신병수와 '포수 콤비'

를 구성했고, 정용운과 이준영은 '좌완 콤비', 발 하나로는 어디 가셔도 뒤지지 않는 외야수 윤정우와 김호령도 한방을 쓴다. 길었던 부상의 시간을 털어내고 스프링 캠프에 참여한 한기주는 앞선 마무리 캠프에 이어 투수조 후배 임기준과 밤을 보내고 있다.

내야수 이인행은 3년 연속 주장을 맡게 된 이범호로부터 2년 연속 룸메이트로 낙점됐다. 경찰청 선후배인 포수 백용환과 외야수 오준혁, 상무에서 한술 밥을 먹었던 투수 임준혁과 내야수 김주형도 다정한 룸메이트다. 좋은 이들과 캠프의 하루를 고요하게 정리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특별한 손님과의 값진 시간도 주어졌다.

지난 주말 KIA 애리조나 캠프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지난 22일 김병현과 절친한 동료였던 '애리조나의 레전드' 루이스 곤잘레스가 KIA 캠프장을 방문했다. 애리조나 시장 특별 보좌관으로 활약하고 있는 그는 김병현의 팀이 애리조나의 마이너리그 캠프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을 했다.

김병현이 오키나와 선발조로 미국 대신 한국에서 캠프를 준비하고 있어서 옛 동료와의 재회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난 24일 KIA의 미국 애리조나 캠프를 찾은 '코리안 특급' 박찬호가 투수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KIA 선수들은 전설의 등장에 기념촬영을 하고 이야기도 들으면서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코리안 특급' 박찬호도 KIA의 어린 투수들에게 귀한 시간을 나누었다.

김기태 감독의 부탁으로 '호랑이 군단'의 캠프지를 찾은 박찬호는 23일 훈련이 끝난 뒤 KIA 투수들을 상대로 특별 강연을 했다. 2시간30분 동안이나 박찬호의 이야기는 계속됐고, 펜과 수첩까

지 들고간 선수들은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지나요?", "마운드에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등의 질문을 하면서 경청을 했다. 24일에도 박찬호는 캠프장에서 젊은 투수들의 피칭 훈련을 지켜봤다. 박찬호는 "자신 있게, 부담없이, 계획을 가지고 집중해서 정확하게 훈련하라"는 조언을 남기고 캠프를 떠났다. /김여울기자 wool@

광주 정구 꿈나무 '쑥쑥'... 전국대회 잇따라 우승

손흥민 2경기 연속 풀타임

문화초·상무초·금호중 등

광주 초·중학교 청소년들이 전국 유소년 정구대회에서 단체전·개인전 우승을 휩쓰는 등 정상급 기량을 선보였다.

문화초등학교는 지난 22일까지 6일간 순창 실내다목적(동)구장에서 열린 '제57회 전국유소년 정구대회'에서 여자 단체전 우승(사진)을 차지한 데 이어 문선혜·양지영이 여자개인복식(5학년 부문) 정상을 차지했다.

문선혜·양지영은 여자개인복식 뿐 아니라 강가는·백고운·지승빈·김가영·김가별 등과 단체전에도 나서 우승을 이끌었다.

상무초등학교도 이번 대회에서 정재수·문지혁이 남자개인복식(4학년 이하부) 우승을 차지하는 한편, 단체전에서도 3위의 성적을 올렸다.



상무초교 선수들은 지난해 열린 소년체전에서 남자부 선수들이 개교 이래 처음으로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는 등 물오른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금호중학교도 압도적 기량을 과시하며 1학년 개인 단·복식 우승을 휩쓸었다.

금호중은 이번 대회를 통해 1학년 개인 단식(조성준) 우승, 1학년 개인복식(문정인, 주형찬) 우승, 2학년 개인복식(임성진·정운기) 우승과 단체전 준우승을 거머쥘 성과를 올렸다. /김지울기자 dok2000@kwangju.co.kr

'손사인' 손흥민이 9경기 만에 정규리그에서 선발 출전한 토트넘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에 역전승을 거뒀다.

토트넘은 23일 영국 런던의 셀허스트 파크에서 열린 2015-2016 2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델리 알리의 환상적인 결승골에 힘입어 크리스탈 팰리스에 3-1로 승리했다.

손흥민은 지난 20일 레스터시티와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64강 재경기에 이어 두 경기 연속 선발 출전하며 팀의 승리에 이바지했다. 정규리그 선발은 지난해 11월 첼시와의 14라운드 이후 무려 9경기만이다. 지난 9월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홈 경기에서 EPL 데뷔골을 쏘아 올린 손흥민은 이날 공격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으나 풀타임 활약하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청용이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그라운드를 밟지 못하면서 '코리안 더비'는 성사되지 못했다. /연합뉴스

23일 오후(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카타르SC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8강 대한민국 대 요르단 경기. 한국 문창진이 선제골을 넣은 후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